

2006 미국 두록 종돈장 기행기

기행자: **이종영** 대표 / 이천시센터

이승관 소장 / 양산시센터

후원자: **주흠노** 대표 / 보령시센터

박현식 대표 / 김제시센터

이준길 대표 / 북부유전자

안내자: **마이클 김** / PWG 육종그룹

국내 유일의 돼지 인공수정센터 연합체 모임인 프리미엄골드진 그룹은 올해도 어김없이 국내사육가와 돈육소비자의 기호를 보다 충실히 만족시키기 위하여 장도의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이번 방문의 주요목적은 선진국의 육종센터와 종돈장등을 방문하여 선진국 소비자들의 육질기호도 변화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어떻게 미국종돈업계가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지에 대한 전략을 연구하고자 함이었다.

최근 미국 양돈업계의 변화 바람

미국은 전통적으로 옥수수 밀등 대량 곡물생산을 기반으로한 축산 대국이다.

주요 축종으로는 소, 닭, 돼지, 양, 염소, 그리고 칠면조로 우리의 축산보다는 비교적 다양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 요구도 편협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축산농가는 여러 가지 위해 요인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작년에는 미국 중서부 지방에 비가 많이 내려 옥수수 풍작을 오랜만에 맞았지만 광우병 발생으로 인한 소를 위주로 생산하는 축산 농가는 매우 어려웠던 한해였다.



▲ 종돈장 전경

자연 소비자들의 기호도는 과거 소고기 위주에서 돈육이나 계육으로 많이 분산 되다보니 보다 까다로운 소비자들의 미각적 요구가 급증해 돈육업계는 호황 속의 고민을 안는 이중구조를 보였다.

즉 돈육업계의 관점에서는 양돈사양의 생산성은 오로지 육량을 최대화하는 것이었지만 소비자는 같은 가격이면 다홍치마라고 육질 그자체에 품질의 초점을 맞추는 상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보니 미각적 육질에 영향을 주는 부계라인(유색계 - 두록 품종)을 보다 개량할 필요가 있었다.



▲ 왈도농장 영업총책임자와 함께

미국의 부계라인 종돈 생산체계

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공수정율을 자랑하고 정액의 자가생산 보다는 전문 AI업체를 신뢰하고 선호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따라서 비육돈 생산용 터미널 보어 (Terminal Boar)를 생산하고 육종의 방향을 결정하는 두록 등의 유색계 전문 농장은 매우 한정적일 정도로 전문성이 뛰어나다.

일반적인 두록전문 종돈장의 규모는 모돈 150 ~ 650두이며 모두 50년 이상의 전통과 아버지와 아들이 대를 잇는 사업일 정도로 기술적 노하우가 매우 축적된 산업이다.



▲ 스튜어트농장 두록 웅돈

이들은 미국내 총 10여개 종돈장에 불과하며 국내의 대다수 인공수정센터에 종모돈을 정기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전세계에 수요물량의 70% 이상을

커버하고 있을 정도로 미국의 부계라인 종돈장의 위상은 크다고 감히 단정할수 있다.

소비자가 주장하는 돈육 육질의 의미

우리는 터미널 보어 종돈 선발시 육종가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즉 얼마나 빨리 검정체중까지 자라는지, 등지방은 얼마인지, 혹은 등심단면적 (체폭)은 넓은지를 참고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돼지고기가 얼마나 맛이 있는가 보다는 도체중에서 살코기 부위가 얼마나 많은가를 의미하는 바가 더 큰 것이 사실이다. 과연 소비자가 육량을 보고 돼지고기 맛이 좋다고 할 수 있을까?



▲ 왈도농장 두록용돈 분양대기돈 전경

이는 모두 가공업자나 유통업자의 생산성을 의미하는 것 이외에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무엇을 보고 돼지고기 맛이 좋다고 할 수 있을까? 이는 다름아닌 먹을때 보기좋은 색깔을 띄고(선홍색), 요리할 때 물이 많이 배어나오지 않아 고기맛이 물렁거리거나 너무 딱딱하지 않고(pH 산도), 한번 요리를 하면 30분이 지나도 굳지 않고(보습력), 먹을 때 입에서 살살 녹을때(마블링 - IMF 근내지방도)등을 의미할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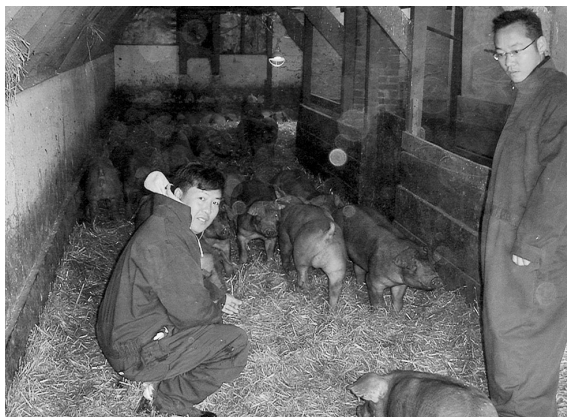
소비자 위주의 돈육시장은 오늘날 축산농가의 이해관계와도 부합될 수 있다

우리 양돈농가는 요즘 흔히 돈가가 좋으니 소모성 질병으로 인한 폐사만 없으면 근심걱정이 없을 거라고 이구동성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가? 예전에는 돈가가 나빠 돼지가 덜 죽었다는 말인가?

우리는 한때 규격돈과 정육율 향상이 최대의 육종목표(Genetic Focus)였다. 그러다 보니 돼지의 등지방이 얇아지고 골격이 작아지는 현상을 만들고야 말았다.

즉 사육되는 돼지의 내성이 약해져 조금만 환경적인 변화나 질병적 요인만 발생하여도 폐사로 연결될 확률이 높아진 것이다.

이것은 비단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몸살을 앓고 있다. 만일 육질이 좋은 돼지를 만



▲ 헨키어 두록농장 자돈선발 광경



▲ 헨키어 두록농장 자돈선발 광경

들고자 한다면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겠으나 종돈장 모두 이구동성으로 등지방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얇은 셔츠 하나만 입은 아이들 보다는 따뜻한 내의를 입은 아이들이 더욱 건강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등지방을 두껍게 개량하려는 종돈장

1) 왈도 두록 전문 종돈장 (Waldo Genetics)

왈도는 미국과 캐나다를 통틀어 가장 오래된 두록전문 종돈장으로 그 역사가 100년이 넘는다. 미국 중서부 네브라스카주(시카고에서 서향 800km)의 대표기업가로 유명을 떨쳤다고 하며 현재 두록모돈 650개를 사육하고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 종돈장 대부분이 왈도 혈통을 모체로 개량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 매우 전통있는 종돈장이다.

작년에는 한국에도 약 70두를 수출하였으며 왈도 두록의 특징은 균일도이다.

두 마리를 보아도 20두를 보아도 모두 똑같이 생겼다. 왈도의 향후 종돈개량 목표는 질병에 강한 터미널 보어용 종돈을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3사이트 (이유 - 자돈 - 육성)를 철저히 생산지침으로 삼고 각 돈장은 최소 4km에서 320km 떨어져 매우 청정한 돼지를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반면 종돈은 궁극적으로 환경이 다양한 외부 AI 센터 등에 분양되므로 출하전 1개월 이상 청정지역 내 외부 방목장에 격리 사육한다.

왈도는 총 10여개의 혈통을 보유하고 있다.

2) 스튜어트 두록 전문 종돈장

.....

강건한 돼지는 2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육량위주 보다는 등지방이 다소 두꺼워져
자가 면역력을 향상시킬수 있는 체형적 조건과 밀사를 지양하고 가급적 모돈의 경
우 운동할 수 있는 공간 제공과 벧집 등을 깔집으로 이용한 유기농 축산으로
한발 더 나아간다면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다.

.....



▲ 헨키어 두록농장 사장과 함께



▲ 헨키어 두록농장 게스퍼

(Stewart Duroc Farm)

미국내 양돈최대 집산지로 유명한 아이오와 f(Iowa)에 위치하고 있으며 1950년대 이후 아버지의 대를 이어 아들이 전통 가업으로 물려받은 유명한 두록 전문 종돈장이다. 스튜어트 종돈의 특징은 체폭이 좋으며 골격이 매우 튼튼하다.

스튜어트 종돈장은 규모에 비하여 끊임없는 육종개량을 하고 있어 한국인이 선호하는 개량을 지

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3) 헨키어 종돈장

최근 우리 양돈업계는 일본의 육류 및 인공수정 센터 방문에 매우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낸적이 있었다. 일부에서는 마블링이 뛰어난 일본산 두록 종돈 도입을 추진중에 있을 정도이다.

이는 그만큼 두꺼운 등지방과 마블링 유전인자



▲ 헨키어 요크셔농장 사장부와 함께



▲ 헨키어 요크셔농장

가 고정된 터미널 보어용 두록 종모돈을 갈구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헨키어 종돈장은 일본인들이 선호하는 최대의 두록 수출 종돈장이다.

등지방이 타 종돈장보다 30% 이상이 두꺼우며 마블링은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매년 자기진단공명

(MRI) 테스트에서 최상위 성적을 자랑한다. 앞으로 우리나라 양돈농가에서 기대할 만한 종돈장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믿는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육종개량 이제는 욕심이 아니다. 양돈농가의 생산성은 곧 돈이라는 인식이 최근 부쩍 늘고 있다.

이와관련 모돈을 늘리고 돈사를 개량하지만 여전히 경영이 어렵다는 농가도 주변에는 흔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병이나 스트레스에 강한 유전인자를 갖춘 돼지를 개발하는

것이 육종회사는 종돈장의 사명 아니겠는가?

물론 간단히 해법이 제시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만족시켜야 하는 고객을 기존의 육가공장에서 직접 돈육을 소비하는 일반 소비자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보다 소신 있는 육종개량 목표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강건한 돼지는 2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육량위주 보다는 등지방이 다소 두꺼워져 자가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형적 조건과 밀사를 지양하고 가급적 모돈의 경우 운동할 수 있는 공간 제공과 벧집 등을 깔집으로 이용한 유기농 축산으로 한발 더 나아간다면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이미 영국이나 미국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